

일반국도 유희부지 유형별 그린인프라 구축과 장소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 도로경관설계기법

이은정* · 김건우**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스케이프어바니즘 전공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스케이프어바니즘 전공 조교수

I. 서론

도로의 기능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있으며, 과거에는 운송적 기능(통과) 위주의 선행 개발이 이루어져 도로의 부가적 기능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도로와 도로 인접 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한 면형개발로 전환하여 인접지역을 연결하는 운송적 기능 이외에 지역간의 문화와 자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개발되고 있다(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015).

유희공간은 경우에 따라서 자연경관을 개선, 다양한 지역 콘텐츠와의 연계 등 다양한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어 주변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유희공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환경과 경관은 국토 및 도시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유희공간의 계획과 설계에도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MOLIT, 2013).

이러한 변화는 국토정책과 함께 이전의 도로를 단순한 차량 통과와 기능적 공간으로부터 복합적 도시활동이 연계된 공간으로 변화될 잠재적 공간이며 도시의 새로운 경관자원으로서 기대하게 하였으며, 일반국도 유희공간의 활용은 다목적 이용을 유도하는 기회로 도시재생 정책이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의 지하화 및 기능 상실로 인한 폐도로 등 유희공간에 대한 복합적 이용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공공재로서의 폐철도 및 폐도로 등 도시 내 선적 공간에 대한 정책적인 활용도 제고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고려대상이다(국토연구원, 2016).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간차원에서 활용가능한 '일반국도 유희부지'를 대상으로 국도 통과구간의 지형적 특성, 입지적 특성,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장래 도시공간에서의 다면적 역할이 가능한 잠재적 공간으로서 인식하여, 연속적 도로선형의 특성을 활용한 유희부지 유형별 그린인프라 구축 및 특정 거점지역의 장소 브랜딩을 목표로 설정, 이를 구현하는 도로경관설계기법의 실증연구를 통해 유희공간의 지속가능한 효율적 활용 및 공간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도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도로경관의 차별화를

통해 '창조도시시대(era of creative cities)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조사

'유희(遊休)'의 사전적 의미는 '쓰지 아니하고 놀림'으로 개념 자체에 '이용가능한 자원이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유희부지 관련 연구인 '폐도 활용방안 마련 연구(국토해양부, 2011)'에서는 유희부지를 도로 선형개발 및 신규노선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곳으로 별도의 부지활용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도상 유희부지 및 연결구역 지역거점 활용방안 연구(국토교통부, 2017)'에서는 국도 유희부지를 도로 구역 내 미활용 여유 부지나 건설(개량)중인 구간의 국도구간(폐도에정 도로 포함) 등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유희부지의 발생원인별(Table 1 참조)로 구분하고 있다.

Table 1. 유희부지의 발생원인별 유형 정의

정의
도로개설이나 정비과정에서 기존의 도로가 기능을 상실하므로 발생하는 부지
도로개설이나 정비사업 과정에 편입되는 토지 중 필지의 일부가 남게 되어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에서 매입한 잔여지
도로관리청에서 휴게소,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자 도로개설 당시 일정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여건 변경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와 폐도 사이에 위치하거나 하천 등 도로 이외의 공공시설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토지의 활용도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사유지의 가치 하락지
산을 절개하거나 지표면을 성토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므로 발생하는 절개사면이나 법면 중 자연과 어울리지 못하여 운전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도로사면

국도에 발생하는 유희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able 2 참조), 주로 유희공간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문헌 및 사례(자연형, 휴게형, 관광형, 시설형)를 토대로 개선방향

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는 도로의 물리적 형태 관점에서 국한된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유휴공간의 입지여건별 잠재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및 환경에서의 역할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환경에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 및 사후 전략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Table 2. 도로 유휴부지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조사

저자	주요 내용
유인식(2009)	도로 유휴지 활용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2011)	폐도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2016)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국토교통부(2017)	국도상 유휴부지 및 연결구역 지역거점 활용방안 연구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로법’에 따른 “국가간선도로망”인 일반국도(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지 샘플링은 국도 통과지역의 토지용도 변화 및 개발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 각종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 및 인접지역 5개 도시를 통과하는 비시가화지역 국도구간을 대상으로 공간 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 활용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Table 3 참조)으로는 1단계- 문헌조사를 통한 개념 정의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이용실태, 국내외 활용사례 연구, 2단계- 국도 유휴공간의 입지여건 분석 및 잠재력 예측을 위한 주성분 분석 유휴공간 유형화 연구, 3단계-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관점의 도로경관설계기법 연구를 위해 사례지역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전문가 표적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직·간접적 수혜자 선호도 설문평가를 통해 검증한다.

Table 3. 단계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이론검토를 통한 개념 정립 국도 유휴공간 이용실태 분석 그린인프라 구축 및 장소 브랜딩 사례분석	문헌조사
국도유휴공간의 입지여건 분석 및 잠재력 잠재력 예측을 통한 유형화	GIS기반 공간분석을 통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적용 주성분 분석 검증 및 타당성 확인
국도 유휴공간 역할에 따른 유형별 전략적 도로경관설계기법 연구·적용을 위한 사례지역 실증연구 및 평가	유형 및 경관설계기법별 3차원 객체 모델 제작 시각화자료 검토 전문가 표적집단 면접법 및 요인 분석 다계층 선호도 조사

IV. 예측되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유휴공간의 입지조건, 지형특성, 지역 및 문화 특성을 분석하여 유휴공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전략적 활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유휴공간 유형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 및 특정 거점지역의 장소 브랜딩을 위한 도로경관설계기법을 최종의 결과로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입지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유휴부지의 활용을 실효성 있게 유도함으로써 첫째, 국도변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형성유도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둘째, 도시활동과 연계된 도로공간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환경적, 경관문화적, 사회경제적 관점의 유휴공간 활용가치 증대를 도모한다.

V. 결론

오늘날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환경, 문화, 경제 등을 매개로 하여 공공재로서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장소의 경쟁력을 높여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로 도로의 유휴공간은 경우에 따라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지역경관 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특정 거점지역의 장소 브랜딩을 위한 잠재적 공간으로서 다각적으로 접근, 활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도 유휴공간의 입지특성·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용도의 활용보다는 복합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시생태환경적, 사회경제적, 경관문화적 기능을 고려한 도로경관설계기법의 적용으로 그 효용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법/제도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2017) 국도상 유휴부지 및 연결구역 지역거점 활용방안 연구.
2. 국토연구원(2013) 국도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3. 국토연구원(2016)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4. 국토연구원(2019)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5. 김기성(2018) 그린인프라를 통한 도시활성화 방안 연구.
6. 김부미(2019)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장소 브랜딩에 관한 연구.
7. 유인식(2009) 도로 유휴지 활용·관리에 관한 연구.
8. 이동국 외(2015) 국도 유휴공간의 개발 계획을 위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활용.
9. 한국도로공사(2011) 폐도 활용방안 연구.